보잉사 3번째 GPS IIF 항법위성 발사 준비

작성: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희원 (연구원)

지난 7월 9일 미국 보잉(Boeing)사는 12기의 GPS IIF 항법위성 중 3번째 위성을 미 서남부 엘세건도(El segundo)에 위치한 위성개발센터에서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.

SVN-65로 알려진 GPS IIF 항법위성은 델타-4 로켓을 이용하여 2012년 4분기에 발사할 예정이다. 현재 SVN-65 위성은 10월 초에 발사 준비를 위하여 비행전 점검, 연료 주입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. 이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면 GPS 운용 제어국(Operation Control Segment)을 통해 운용될 예정이다.

GPS IIF는 원자시계기술 향상을 통하여 더 좋은 항법 정확도를 가지며, 군용 신호로서 더 안전한 항재밍 신호를 가지고 상업적인 비행과 탐사 및 구출 운용을 위해 보다 정밀하고 간섭이 없는 민간용 L5 신호를 전송한다. 또한 12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, 궤도상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(향상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업로드를 받을 수 있음)를 가지는 등 보다 향상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.

* 본 기사는 GPS Daily (2012.7.27일자) 기사를 편집한 내용입니다.
* 자료출처
http://www.spacedaily.com/reports/Boeing_Ships_3rd_GPS_IIF_Satellite_to_Cape_Canaveral_for_Launch_999.html